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뼈격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애긴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쾌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

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A]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육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궁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뽀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 는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

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건잡을 수 없이 떨렸다. ㉞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낮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㉟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

18. ㉞~㉟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한다.
- ② ㉞: 인용 부호의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다.
- ③ ㉟: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④ ㉟: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하여 서술한다.
- ⑤ ㉟: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1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갯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 ②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갯속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③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유패감’을 느끼는 것은, ‘낮고 좁’은 ‘오소리 굴’ 같은 갯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된다.
- ④ ‘그’가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잔해’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창고 안과 갯속의 공통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
- ⑤ ‘그’가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암흑’으로 가득한 갯속에서의 경험과 연관된다.

20. ㉞와 ㉟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와 ㉟은 모두, 인물이 품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 ② ㉞와 ㉟은 모두,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음을 보여 주는 반응이다.
- ③ ㉞는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㉟은 인물의 좌절감을 드러낸 반응이다.
- ④ ㉞는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㉟는 해소된 인물 간 갈등이 다시 야기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다.
- ⑤ ㉞는 인물에게 주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한 결과로, ㉟는 인물이 예상 못 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 ②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살펴보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왔음을 자각한 것이군.
- ③ ‘그’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여기는 것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군.
- ④ ‘그’가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의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낮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 전혀 없어
삼십 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풍류 정취 끝이 없어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단았더니
㉡ 뒷절의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 나에게 하는 말이
네 병을 내 모르랴 천석고황이라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 갠 개니 날씨도 맑을시고
어와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지팡이 바빠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시냇가 방초 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아이종 불러내어 뼈 드러난 여원 말에게
채찍을 걷어쥐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삼월 삼짇 아름다운 계절이라
㉣ 아이들과 촌로들이 춘흥을 못 이겨
탁주 병 둘러메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석양이 비끼는데 말 등에서 잠이 들어
㉤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중략)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밀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이 있었던가**
천지간 장한 정치 반 이상 물이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여쭙리라
㉥ 바윗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히 메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운교를 걸어 건너 술숯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한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며
작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고
이 손님 뉘시기에 어찌 들어와 계시는고
낫 메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땀나무하러 와서 무심히 다니오니
진관암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마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에 부쳤도다

－ 권섭, 「영삼별곡」－

* 목적 : 목동의 피리 소리.

(나)

[앞부분의 줄거리] 석릉자 김매순은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를 얻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집
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편안히 거
쳐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석릉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자, 석릉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뇌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 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 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
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 않다. 방위를 맡
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의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조화하여 72풍
이 되어서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없다. 북쪽 바다에
서 일어나서 남쪽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왕궁과 여염집을 가
리지 않고 불어대니, 한 곳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으며,
큰 나무를 뽑아 버리는 일이 있지만 굵은 싹을 펴 주기도
하고, 단단한 얼음을 열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
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부유함
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얇게 울리고
흔들리며 넓고 크게 돌고 돌아 사라져 버리니, 바람이 허공
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과,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은,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하다가 저녁
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
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
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생각건대, 바람에 처하는 데에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
데 정신을 모으고 빈 데에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
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치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
를 어떻게 하겠는가?**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
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
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 듯하
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래서 글을 써서 풍서기라 한다.

－ 김매순, 「풍서기」－

*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 : 소육이 주박과 매우 친했
는데 소육이 출세한 후 주박이 그의 천거로 역시 출세한 것을 말함.

*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 : 중국 당 헌종 때부터 당 선종
때까지 걸쳐 일어난 우당과 이당 사이의 정치 투쟁을 말함.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구조를 통해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 ② ㉡: 풍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화자가 떠날 길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여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시상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 깊은 산속에서 마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해 풍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에 대해 조언한다.
- ② ㉠과 ㉡는 모두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여행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무란다.
- ③ ㉠은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는 여정의 지속을 도와준다.
- ④ ㉠은 여정을 시작하도록 화자를 독려하고, ㉡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
- ⑤ ㉠은 화자에게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는 화자에게 여행의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유한다.

25.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 ② ‘석룽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지녔다고 보았다.
- ③ ‘석룽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굵은 싹’,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 ④ ‘석룽자’는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고 보았다.
- ⑤ ‘석룽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질문의 형식은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 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들은 인물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촉발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 ① (가)에서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짙어 있었던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군.
- ② (가)에서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야 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군.
- ③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좌’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④ (나)에서 ‘석룽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석룽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는군.
- ⑤ (나)에서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은 직전 질문에서 이어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석룽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 주는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헌에 막 들어섰다. 이때 왕 부인이 중헌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벌써 중헌에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했다.

“백년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빠 나와 맞이하시오.”

왕 부인이 마지못해 나와 소생을 맞이하니,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윗감을 직접 데려왔소.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함께 내 말과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오.”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시비가 명을 받들고자 안으로 들어갔다. 왕 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소생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이에 왕 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테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러신단 말이나?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 이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류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짐과 다름 아니어라. 아버가 세 번 부르는데도 좇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도다.”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중헌에 나아갔다.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소생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 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 군자를 점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채봉이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이옵니다.”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보았다.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이때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

다.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히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탄복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승상은 갑작스레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왕 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한다.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난다.

이튿날 채봉은 왕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온데, 오라버님들에게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간다 했습니까?”

“너는 **규중처자의 몸**인데, ㉠ **외간 남자의 유무**를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채봉이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소녀가 ㉡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헌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온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나? 대개 수절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오륙 년 후에 육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중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말했다.

“어머님! 분명히 중헌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종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 옛날 초나라 왕이 다섯 살 된 공주에게 ‘네가 자라면 성 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희롱했습니다.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첩이 다섯 살 적에 부왕께서 성 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왕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나,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써 간청합니다.’라고 초왕에게 여쭙었는데,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소녀는 이제 열셋입니다. 어찌 소녀가 다섯 살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

[A]

왕 부인은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채봉을 꾸짖었다. “네가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채봉은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의 연만은 끊을 수가 없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엔 총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채봉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니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한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정녕 한심합니다.”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명감: 뛰어난 식견.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 ②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 ③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헌에서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 ④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 ⑤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과 ㉡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간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과 ㉡을 통해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각각의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A]에 나타난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발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⑤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환기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 소설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 부인이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들이길 바라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에서, 주인공이 지닌 호걸형 인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군.
- ③ 승상이 독단으로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윗감으로 정한 것에서,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군.
- ④ 왕 부인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에 따르다가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⑤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탄복하게 된 것에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임이 드러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줄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 오는
회색의 잔디밭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 김기림, 「아스팔트」 —

(나)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 신포 어디쯤에 닿아 해맨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
 들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닳이 꿇긴 배 한 척,

— 김명인, 「봄길」 —

* 부리러: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러.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 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 ② 대상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화자가 느낀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 ③ 대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느낀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자의 권태로움을 해소한다.
- ⑤ 대상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화자의 침울함을 극복한다.

3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 ② ㉠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로 향한다.
- ③ ㉡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 ④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와 ㉢ 사이에 놓인 ‘닳이 꿇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 ①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 ② (가)에서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 ④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